

“5월27일 새벽 3~4시 광주천변 상공 1~2m서 군인들 내려놓고 헬기, 도청 향해 날며 집중사격했다”

5·18때 전일방송 직원들 증언 들어보니

예광탄 번쩍…기관총 장착된 500MD 헬기 추정

도청·전일빌딩 겨냥 1시간 이상 난사 가능성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장 헬기가 5·18 시민군이 최후 항쟁지로 삼았던 전남도청 건물 방향으로 공중 사격하며 날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시민이 목격한 헬기사격 시각이 전투 교육사령부 80년 5월 27일 작전일지에서 확인<광주일보 2월23일 6면>된 공수부대, 20사단 측 무장헬기 지원 요청 및 도착 시각(4시51분과 4시45분) 보다 1시간 이상 빠른 것이어서 도청 진입작전 당시 복수의 무장헬기가 투입돼 1시간 이상 도청건물과 전일빌딩을 난사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18 당시 전일빌딩 7층 전일방송에서 PD로 근무했던 이상욱(68·사진)씨는 23일 “공 부는 소리와 파다닥 헬기 나는 소리가 들려 2층 다락으로 올라가 밖을 봤더니 광주천변 상공 1~2m 높이에 헬기가 낮게 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푼푼 헬기에서 튀어나온 10여명의 군인이 도청으로 뛰어갔고 헬기도 날아올라 도청 방면으로 향했다”면서 “도청을 향하던 헬기에서는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헬기에서 튀어나온 빨간 불빛이 계속 도청건물로 날아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광경을 목격한 일시를 1980년 5월 27일 새벽 3~4시로 기억했다.

충정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엄군이 도청 진입작전에 돌입한 시각이 이날 새벽 3시30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씨가 목격한 시각은 새벽 3시30분~4시, 목격된 헬기는 전면을 향해 7.62mm 실탄을 발사하는 기관총이 장착된 500MD로 추측된다.

당시 광주전 옆 불로동 주택에 살았던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헬기에서 총성과 함께 도청으로 향하던 그 불빛은 예광탄

(10발당 1발씩 불꽃을 달고 날아가는 탄환)이었던 것 같다”면서 “그날 새벽 3~4시부터 아침 6시까지 헬기소리, 공 부는 소리, 탕탕거리는 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때 대부분 시민들은 집 안으로 총알이 날아들까 숨어불을 덮고 숨을 쉴 정도로 잔인했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와 그의 동료 등 1980년 5월 전일방송(전일빌딩 7~10층)에서 근무했던 10여명의 시민들은 광주시 5·18진실



이상욱씨

10층은 국립과학사연구원 보고서에서 “헬기사격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밝힌 150여개의 총탄 흔적이 보존된 공간이다.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5·18전문가 7명은 전일빌딩 구조, 주요 피탄 지점, 헬기

공중사격 여부, 탄피 등 흔적 보존 여부 등을 집중 증언했다.

인터뷰 후 조사위원들은 “전일빌딩에 대한 공중사격 및 탄흔은 10층짜리 건물의 7, 8, 9, 10층에 집중돼 있었다”, “7층에서 시민군이 사용했던 대검과 칼빈 소총이 발견된 점, 7층에 사격이 집중됐던 점을 보면 7층에서 시민군의 마지막 저항이 있었거나 주요 활동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5·18진실규명지원단은 당시 군(軍) 기밀문서를 입수해 항공 무기체계의 광주 투입 경위와 헬기 기동 상황, 항공 부대 지휘관 등을 밝혀내 5·18 헬기사격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그 날을 말한다

23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진실규명지원단’이 1980년 5·18 당시 전일방송에서 근무했던 시민을 집단 인터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헬기사격 규명 결의안 국방위 통과

내달 2일 본회의 상정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29명 의원이 제안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을 규

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현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철주 무안군수, 친형 사업비리 관련 소환 조사

김철주 무안군수가 23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목표지청은 이날 김 군수가 친형 등 주변 사업비리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군수 친형은 군이 발주한 공사 설계 변경과정에서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지난 1월31일 구속됐다.

친형 김씨는 군에 설계변경을 알선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친형이 김 군수에게 관련 청탁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앞서 친형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사건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무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 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2살 아들 때려 살해후 시신 유기 광양경찰,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

여수 야산 수색…시신 못찾아

임시보호 지인 아이 학대도

두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용의자인 아버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시신 유기 장소도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광양경찰청은 아들을 때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로 강모(26)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강씨의 부인 서모(21)씨에 대해서는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범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A(당시 2세)군을 혼욕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집에 이틀동안 방치했다가 여수지역 바닷가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3일 오전 강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여수 모 해수욕장 인근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강씨의 범행은 강씨 부부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의 제보로 2년3개월만에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일 강씨 부부의 지인으로 부터 ‘강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 지난 20일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강씨의 부인 서씨로부터 “당시 남편이 작은방으로 아들을 데려가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 죽어있었다. 무서워 신고하지 못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씨는 제벌과 사체 유기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으로 인해 숨진 게 아니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씨는 “아들은 폭행으로 숨진게 아니라 제벌받던 도중 밤상 모서리에 머리를 찢어 숨졌다. 부인 서씨가 혼욕과정에서 죽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체 유기에 대해서도 강씨와 부인 서씨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강씨는 시신을 가방에 담아 부인과 함께 야간에 차를 타고 바닷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씨는 남편 혼자 가방에 넣어 들고 나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살인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살해 경위 및 시신 유기장소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씨 부부가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19개월 된 자녀 B(2)양에 대한 학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출동 당시 B양의 얼굴 양쪽 볼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강씨 부부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양을 보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의 친자녀 2명에 대한 학대 가능성과 함께 부인 서씨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씨의 결혼 전 사친 여성과의 사이에 둔 아들(7)과 서씨와 사이에 낳은 숨진 아들 A군과 딸(3), 또 다른 아들(2)을 두고 있다. 큰아들과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보호 중이며, 막내아들은 낳자마자 영아원으로 보내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김한영기자 young@

/광양=김경원기자 kkw@

아이 숨진 사실 숨기고 꼬박꼬박 양육수당 챙겨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는 아이의 숨진 사실을 숨기고 꼬박꼬박 양육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숨진 아이 뒤편 아버지 강씨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4년 11월 이후 총 305만원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일 양육수당 명목으로 10만원이 강씨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나머지 두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에 등록

돼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수당이 지급됐다. 강씨는 여수시 미평동에서 지난 1월 현재 거주지인 선원동으로 이사했으며 그동안 수심 번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동에서는 1월과 2월 각각 10만원씩 두 번의 수당을 받았다.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지급대 아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졌다면 범죄 사실이 보다 일찍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조건 만남 10대와 성관계 후 돈 대신 몰카 촬영 협박



○…‘조건 만남’을 전제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무력으로 간음한 20대가 최고량.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신모(25)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20만원을 주겠다”며 A(17)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되레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한차례 더 간음한 혐의.

○…신씨는 앞서 같은해 4월에도 또 다른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B씨가 사위하는 틈을 타 B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드러나 성매매·절도·사기죄가 추가.

/북경기자 jw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주거용오피스텔(5층)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정가 21억3천 ▶ 최저가 14억9천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등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부근 상가건물(4층) 토지 865㎡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 ▶ 최저가 14억5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현재스테하우스 낙안읍성인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정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중고시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개인사찰 토지 1,587㎡ 건물 514.19㎡ 감정가 17억1천 ▶ 최저가 7억6천6백
- ★ [공장] 광주 서구 동천동 유촌마을 북서측 인근 토지 1,226㎡ 건물 323㎡ 감정가 12억1천7백만 ▶ 최저가 6억8천2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토지 3,234㎡ 건물 4,281㎡ 감정가 37억8천7백 ▶ 최저가 9억9천2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옥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1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1~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요양병원최적지 매매 37억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영암 신북면 신북면사무소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 2,535㎡ 무인텔, 대형마트 최적합부지 투자가치높음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접)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3,943㎡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의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공인중개사 **김 재 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